

‘독심의 이용수’ 한국축구 부활 이끈다

사커 토막

| 축구협회, 이용수 선임 기술위원장 선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때 기술위원장이었던 아성 강한 원칙주의자...12년 만에 복귀 이용수 “해야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히딩크 때처럼? 감독 선임 큰 역할 기대

12년만의 컴백이다.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 한명인 그에게 한국축구는 또 한번 큰 역할을 맡았다. 바닥까지 추락한 한국축구를 되살려야 할 그는 축구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신입 기술위원장에 이용수(55) 협회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선임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축구팬의 기대에 부응해 기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로 2002한일월드컵 당시 기술위원장을 역임한 이용수 단장을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 위원장은 “기술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율 방향이라는 아니지만, 기술위에서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기술위 운영 계획과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2년만의 컴백

이용수 위원장은 서울체고~서울대를 거쳐 미국 오리건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 축구인이다. 실업축구선수로도 활약한 경기인 출신이다. 1997년부터 2년간 기술위원으로 활동한 뒤 2000년부터 2002년 월드컵까지 기술위원장을 맡아 거스 히딩크 감독의 선임부터 4강 신화까지 영광을 함께 했다. 이후 KBS 해설위원과 세종대 교수로 활동했고, 지난해 다시 축구협회로 돌아와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맡았다.

축구협회의 설명처럼, 2014브라질월드컵 참패와 홍명보 전 감독의 사퇴로 공황 상태에 빠진 한국축구는 이 위원장의 경륜과 비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2002년에는 개최국으로서 우리의 경기력에 기술위가 전력을 기울였다면, 이번에는 유소년축구 육성 등 좀더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와 긴장관계, 독일까? 독일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기술위의 위상을 복원해야 하는 이용수 위원장은 우선 국가대표팀 선임 사령탑 선임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납득할 만한 기술위원 선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28일 9~10명 수준의 기술위원을 발표하고, 이 중 3명 안팎을 상근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4년 전에 이어 지난해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때도 ‘축구계 야당’인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을 지지했다. 그가 제도권에서 물러나 운동인 재야에 머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다시 축구협회에 몸담긴 했지만, 그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몽규 회장 등 현 집행부가 ‘야당 인사’인 그에게 중책을 맡긴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그의 능력을 믿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온화하면서 합리적 성품을 지녔지만, 자신의 신념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함께 강한 독심까지 갖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축구계는 “이용수 위원장이 현 집행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표팀 사령탑 선임 등에서 사실상 전권을 부여받았을 것”이라며 “현 집행부와는 평평한 긴장관계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도한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선임 기술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정부가 구성한 ‘한국축구혁신특별전담팀’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뉴스시스



문체부 이상일 체육국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한국축구혁신특별전담팀’ 구성 계획을 밝힌 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가운데),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김휘 회장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국축구혁신특별전담팀 운영 저변 확대와 효율 추구 ‘두 토끼’

정부, 축구단체 통합 논의...이용수 위원장도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 축구연합회의 통합 등을 다룬 ‘한국축구혁신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 장기적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염두에 둔 정부의 다각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문체부 이상일 체육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라질월드컵 16강 진출 좌절, 국내리그 경쟁력 약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축구행정 등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축구 중흥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축구 관련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김휘 회장,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 등이 동석했다.

“엘리트축구와 생활체육축구 단체의 분리는 축구저변 확대와 효율적 축구 발전의 제한요인이었다. 양 단체가 통합해 ‘1종목 1단체’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힌 우국장은 “문체부는 축구를 시작으로 다른 종목도 1종목 1단체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장기적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우 국장은 “소수의 대의원이 협회장을 선출하는 현재의 단체장 제도를 개선해 다수의 축구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통합축구단체장의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프로축구의 진정한 프로화를 위해 구단별 관중 증가율, 경영공시제도 도입 여부 등 구단 경영을 평가해 스포츠로써 주최단체지원금을 프로구단에 차등 지급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축구혁신특별전담팀은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물론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대한체육회, 한국스포츠개발원 등 한국축구 발전을 위한 모든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한국축구 전반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이용수 세종대 교수, 채재성 동국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양 단체 통합뿐 아니라 K리그, 여자축구, 동호인축구클럽 활성화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전담팀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가칭)한국축구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도한 기자

“홍명보 더 단단해질 것” 히딩크의 ‘힐링 메시지’

월드컵 실패 위로...“내겐 소중한 제자”

홍명보(45)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4브라질월드컵에서 큰 아픔을 맛봤다. 축구계 안팎에선 온갖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다.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와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 패거리의 주역이었지만, 브라질월드컵 3경기 만에 ‘영웅’에서 ‘역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휴식을 취해온 홍 전 감독에게 위안을 준 이는 이방인이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축구장인 드림필드 12호(서울 덕성여대) 개장과 K리그 올스타전 참가를 위해 방한 중인 거스 히딩크(68·네덜란드·사진) 감독이다.

브라질월드컵에서 3위에 오른 자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다시 잡은 히딩크 감독과 홍 전 감독은 22일 서울 모차에서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며 장시간 이야기꽃을 피웠다. 홍 전 감독은 못다 한 월드컵 이야기, 재신임에서 사퇴로 번복된 일련의 과정 등을 히딩크 감독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히딩크 감독은 2002년의 영광을 함께 만들고,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안지 마하치칼라에서 감독과 어시스턴트 코치로 호흡을 맞추기도 한 홍 전 감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간 나는 한국축구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솔직히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순 없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내게 있어 년 가장 소중한 제자다. 아프지만 더 단단해지기 위한 한 번의 시련

일 뿐, 계속 앞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아니다.”

25일 K리그 올스타전에서 ‘팀 박지성’의 사령탑을 맡는 히딩크 감독은 옛 제자에게 벤치에 함께 앉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홍 전 감독이 고사해 실제로 성사될 순 없게 됐지만, 내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히딩크 감독과의 대화는 홍 전 감독의 가슴 속 생채기를 어루만진 ‘힐링캠프’였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j2357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Imagine your Korea

“상상하세요, 당신만의 대한민국!”

수많은 세계인들이 상상하고 열광하는 곳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무한한 매력이 넘치는 곳, 한국
‘Imagine your Korea’는 우리가 정의 내리기 보다
세계인들의 상상으로 완성되는 새로운 한국 관광 브랜드입니다

■ ‘Imagine your Korea’는 국민 공모를 포함한 총 9,130여 건의 아이디어와 전세계 20개국 18,500명의 의견, 전문가의 조사와 자료를 통해 완성시킨 관광 브랜드입니다